

섬 포교 희망 심을 불교대학 문 열어

3월 5일 완도 신홍사 완도불교문화대학 개교

한반도 남쪽 끝 전남 완도에 불교전통교육기관이 들어서 지역불교활성화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완도 신홍사(주지 법일)는 3월 5일 완도 불교문화대학 개교와 함께 신입생 50여 명을 모집해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한 완도불교문화대학은 완도 지역 최초의 재가불자 전문교육기관이다.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활발한 곳. 완도 불교문화대학은 완도뿐만 아니라 서해안 도서포교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전남 서해와 남해는 언제부터인가 사찰이 자취를 감추었다. 오래된 사찰이 있어도 정상적인 법회와 포교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불과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섬포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완도불교문화대학에서는 불교예절, 사찰문화, 부처님일생, 기초교리, 불교실천수행 등 불교전반에 걸친 기본내용과 천수경, 반야심경을 비롯해 문화답사, 템플스테이, 사찰체험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1년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첫 개교식에는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 완도사암연합회 회장 벽해 스님, 시정암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해 이진 완도군 부군수 등 100여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는 교리보다 개인 기도에 집중한다. 간절한 기도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불교대학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3월 5일 신입생 50명 모집 완료

불교실천수행, 템플스테이 실시

이러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제 한국불교는 외형적인 불사를 넘어 교육불사를 통해 완전한 불교를 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수레가 양쪽바퀴로 완전한 기능을 하듯이 수행과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완도불교문화대학은 불교의 체계적 교육을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강사진을 꾸렸다. 강사진으로는 신홍사 주지 법일 스님을 학장으로 교학처장에 고은 스님, 교수진에 혜진 스님, 광주불교문화대학장 행



완도 불교문화대학 입학식에서 불자들이 활발한 포교활동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법 스님, 화순 시적암 주지 법상 스님, 해남 미황사 부도암 만우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장성 백양사 율감 덕유 스님, 조선대 환경공학부 이성이 교수, 정광고등학교 교장 이도배 박사 등이 참여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야간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와 함께 수련회, 문화답사 등도 진행된다. 졸업 후에는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포교현장에 투입된다.

이날 교수진들과 입학한 신입생들은 전남 도서지역 불교세가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완도 지역 불교교육을 담당할 불교문화대학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한 교세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생 이승아(43) 씨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 공부할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했다”며 “불교대학에서 불교의 다양한 교리와 문화, 수행 등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입학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박한영 스님 기념관 선운사에 건립돼야”

전북역사문화학회, ‘석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서 주장

한국 근현대불교계의 선지식인 석전 박한영(1870~1948)스님의 기념관이 고창 선운사에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고창군과 전북역사문화학회(회장 나중우)는 석전 박한영스님의 삶과 사상, 그가 남긴 문화에 끼친 업적등을 재조명하기 위한 ‘석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석전 스님은 일제 시대의 해방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선불교교정(현 중정) 역임한 당대 최고의 불교계 지도자이다. 동국대 전신인 불교고등강숙 속사, 중앙학림 및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석전 스님의 제자로는 통함종단 제2대 종정인 정담 스님과 윤해·운기·운성·청우·남곡·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문인으로 신석영·서정주·조지훈,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희 등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중우 전북역사문화학회 회장은 “그 동안 선운사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하고 다례제와 추모제, 특별기획전 등이 열렸지만 기념관이 건립돼 정신을 널리 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역사문화학회 측은 현재 선운사 인근에 미당박물관, 고창 무초미술관, 판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등이 있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미 선운사에는 위장 오세창이 제역한 석전 영정을 비롯해 석전 스님의 저술과 자료, 병풍, 대련, 간찰 등 스님의 유묵과 교류했던 많은 문사들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 마련에도 수월한 상황이다.

나중우 회장은 “석전 스님은 삼천리 제4권 제3호에 ‘차대(次代)의 지도자 총관(總觀)’ 기사에서 석전 스님을 불교계 지도자로 명기하는 등 당대에 인품과 덕이 널리 알려진 분”이라며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선구자이며, 불교개혁과 항일독립 운동으로 한 획을 그었던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기 위한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들이 주도해 평화운동 나서자

천안 보명사 대광 스님, 한국 영세종립국화 호소

천안 보명사 주지 대광 스님은 “한반도 평화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한국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영세종립국화에 나서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광 스님은 “불교는 훈교학적 수준을

벗어나 응용불교, 실천불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불교가 외세의 위협을 잠재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종립국화 발원은 3월 3일 전국민 서명운동본부가 발족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 자비 쌀 전달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불교계의 나눔 잔치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3월 13일 ‘제6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홍사, 금신사, 연화사, 관음사 등 14개 광주전남지역 사찰에서 후원받은 쌀 1,640kg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1명에게 40kg씩 전달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쌀 나누기로 인해 자비의쌀을 전달받은 활동가들은 200여 명에 달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

대는 북한 식량난 당시 쌀을 모아 전달했으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 위에도 쌀을 전달한 바 있다.

법일 스님은 “지역사회의 발전은 시민활동가들의 힘에 필수적이다”며 “불교계의 작은 정성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실 무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쌀을 지원받은 단체는 광주전남 15공동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진보연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타 스님 열반 65주기 다례제

근대불교의 큰가동 벽산당 금타 스님(1898~1948)의 열반 65주기 다례제가 봉행됐다.

곡성 성문사(주지 무상)는 지난 3월 5일 경내 법성당에서 벽산문도회 부의장인 도일 스님, 무상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례제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행장소개, 보리방편문 봉독, 종사 영반, 헌화, 문도대표 인사 등이 진행됐다.

도일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큰스님의 수행정진과 깨달음의 내용을 많은 후학들이 배워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다례제가 끝난 후 정운당에서 열린 벽산문도회 총회에서는 성륜불교문화재단 정관 변경과 청화불교대학, 청화사상연구회 활성화 방안이 결의됐다.

한편, 금타 스님은 1919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금타 스님 열반 65주기 다례제

교학과 참선을 두루 공부했다. 1936년 백양사 운문암 동안거 수행시절 ‘일각경 삼정관의 이심요 청정법륜요’ 옹명 정진했다.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서 지낸 한차례 안거를 제외하고는 10여 년간 내장사 벽련선원과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정진했다. 1948년 세수 51세, 법남 30세로 입적했으며 제자로는 법련(法蓮), 법능(法能), 청화(淸華) 스님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원노인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눈길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원혜)이 위탁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밀착형 복지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3월부터 전주 동안산동 안산골문화관에 교육강사를 파견해 요가와 민요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복지관의 교육강사 파견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복지관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산골문화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요가 강좌를 듣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장 보연 스님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2번 요가수업을 듣고 있는 김시순 씨(66세, 동안산동)는 “통증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걸음이 힘들어 복지관에 가지 못했는데 복지관 강사님이 인건 기간에 와 요가를 가르쳐줘 이제 걸음이 좋아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대종교 재활용장터, 무각사에서 개최

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 4대 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주지역 재활용장터 ‘보물섬’의 2013년 첫 장터가 3월 9일 무각사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9년 3월 첫 장터를 연 보물섬은 누구나 자신만의 중고물품이나 개인 물품을 들고 나와 판매가 가능한 나눔장터로 판매의 일적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개장식에는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 개신교 정관재 목사, 김종식 광주



보물섬 장터의 인산인해 장면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쌍 출가의식 지원

신쌍은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쌍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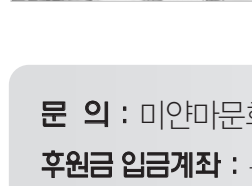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에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